

## 부 록

### [부록 1]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현황

정 책 대 응 현 황
통화정책 <sup>31)</sup>
- RP 매입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6.5조원 외화유동성 공급 (9.18)
- 금융위원회, 주식 공매도 금지 (9.30)
- 중소기업에 4조 30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(10.1)
- 시중은행에 50억 달러 외화유동성 지원 (10.3)
- 한국은행, 기준금리 5.25%에서 5.0%로, 총액대출금리 3.50%에서 3.25%로 인하 (10.9)
- 국내은행 대외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 (10.19)
- 300억 달러 규모의 외화유동성 은행에 추가 공급 (10.19)
-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 발표 (8.7조원 규모, 10.21)
- 한국은행, 총액한도대출 2.5조원 증액하여 9조원으로 한도 확대 (10.23)
- 한국은행, RP 방식으로 증권사, 자산운용사 등에 2조원 가량의 유동성 긴급 지원 (10.24)
- 한국은행, 기준금리 5.0%에서 4.25%로, 총액대출금리 3.25%에서 2.50%로 인하 (10.27)
- 한국은행, 기준금리 4.25%에서 4.00%로, 총액대출금리 2.50%에서 2.25%로 인하 (11.7)
- 수출기업에 160억 달러의 외화 유동성 공급 (11.14)
-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방안 발표 (11.24)
- 수출환어음 대출금리 0.2%~0.3% 인하 (12.2)
- 금융기관 단계적 자본확충방안 마련 (12.9)
- 한국은행, 기준금리 4.0%에서 3.0%로, 총액대출금리 2.25%에서 1.75%로 인하 (12.11)
- 한국은행, 91일물 RP매입을 통해 2조원 공급 (12.16)
- 한국은행, 기준금리 3.0%에서 2.5%로, 총액대출금리 1.75%에서 1.50%로 인하 (09.1.9)

재정정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계개편안 발표 (9.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득세 : 구간별 세율 2%p 인하(8~35%→6~33%)</li> <li>· 법인세 : (낮은 세율) 현행 13% → (08년 귀속) 11% → (10년 귀속) 10% (높은 세율) 현행 25% → (09년 귀속) 22% → (10년 귀속) 20%</li> <li>· 양도소득세·상속세 : 소득세율 수준(6~33%)으로 인하</li> <li>· 중부세 :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(6억원→9억원),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</li> </ul> </li> <li>- 외환스와프 시장에 10월까지 100억달러 투입 (9.26)</li> <li>-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공급액을 3.3조원 확대하고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4조원 확대 운용 (10.1)</li> <li>- 미 FRB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계약 체결 (10.30)</li> <li>- 기술보증·신용보증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 48조원까지 확대 (11.3)</li> <li>- 14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 (11.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재정기능 강화: 공공지출규모 11조원 규모</li> <li>· 중소기업 지원확대</li> <li>· 영세자영업자, 농어업인, 저소득층, 고용취약 계층 지원</li> <li>·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</li> </ul> </li> <li>- 저축은행 부실PF에 공적자금 투입(12.3)</li> <li>- 재정 60%, 내년 상반기 조기 집행 (12.4)</li> <li>- 금융위원회, 중소기업 추가 지원책 발표 (12.4)</li> <li>- 우리나라·중국, 우리나라·일본 통화스와프계약 체결 (12.12)</li> </ul>

31) [부록 4]에 한국은행 시장안정화 조치 참조

**[부록 2] 주요국의 정책대응 현황**

일자	정 책 대 응 현 황
2008 3월	FRB
	- TAF <sup>32)</sup> 및 RP를 통해 2,000억 달러의 자금지원 계획 발표. (3.7)
	- 이어서 TSLF를 추가로 도입하고 유럽 및 스위스 중앙은행과 맺은 통화스왑 한도 확대 (3.11)
	- Bear Stearns 인수에 대해 JPMorgan에 300억달러 지원 합의하고 JPMorgan은 Bear Stearns를 주당 2달러에 인수 (3.14 - 3.16)
	- 기준금리를 0.75%포인트 인하 (인하후 2.25%, 3.18)
	미 정책당국
	-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감독대상을 확대하고, 감독기구를 통폐합 하는 등의 장기적인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을 발표 (3.31)
	주요국 중앙은행 및 정책당국
	- Bear Stearns 사태 직후 자국 단기시장금리 급등에 대응하여 유럽, 영국, 일본, 호주 등 중앙은행들은 시장에 유동성 공급 (3.17 - 3.18)
2008 7월 { 10월	FRB
	-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을 막기위해 1,400억달러 단기 유동성 공급 (9.16)
	- AIG 파산을 우려하여 850억 달러의 자금지원 (9.16)
	- 5개국(유럽, 영국, 스위스, 일본, 캐나다) 중앙은행과 맺었던 670억달러의 통화스왑한도 협정을 호주, 뉴질랜드, 스칸디나비아 3국을 포함한 10개국 6,200억 달러로 확대 결정 (9.29)
	- 통화스왑라인을 대한민국, 싱가포르, 멕시코, 브라질등 14개국으로 확대 (10.29)
	- 유럽, 영국, 스위스, 일본 중앙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왑 한도 무제한으로 확대 발표 (10.13 - 10.14)
	-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1%로 인하 (10.29)
	미 정책당국
	- Fannie Mae 및 Freddie Mac에 대한 정부의 Credit 라인 확대, 유동성 공급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긴급구조조치 발표 (7.13)
	- 긴급 여제안정 법안 (EESA <sup>33)</sup> ) 통과 (10.3): · 1년간 MMF 투자원금 지급보장, MBS 직접매입 규모 확대

2008 7월 { 10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최대 7,000억달러의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 등을 정부가 직접 인수할 수 있는 TARP 도입</li> <li>· 예금 지급보장 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조정</li> <li>- 재무부, FRB, 연방예금보험공사(FDIC<sup>34</sup>)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투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 (10.14):</li> <li>· TARP의 7,000억달러 중 2,500억달러를 우선구매 방식으로 금융기관 지원</li> <li>· FDIC는 신규로 발행되는 은행의 선수위 채권과 기업의 당좌예금에 대해 지급보장을 실시</li> </ul>
	<p>주요국 중앙은행 및 정책당국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Lehman Brothers 파산보호 신청으로 자국 단기시장금리 급등에 대응하여 유럽, 영국, 일본, 호주 등 중앙은행들은 시장에 유동성 공급 (9.15 - 9.18)</li> <li>- 호주, 영국, 유럽, 중국, 스웨덴, 스위스, 캐나다 등의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 인하 (10.8)</li> <li>- 주요국 정부는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책 등을 발표 (9.29 - 10.7)</li> <li>· 벨기에 및 프랑스는 Dexia에 64억 유로, 독일은 Hypo Real Estate에 500억유로 구제금융 지원</li> <li>· 영국은 Bradford &amp; Bingley, 베네룩스 3국 정부는 Fortis 국유화 계획 발표</li> <li>- EU는 27개국 회원들에 적용되는 예금 지급보장 하한선을 2만유로에서 5만유로로 상향조정 (10.7)</li> <li>- 유로와 영국은 정부의 은행간 대출/지급 보증, 주요은행 도산방지, 은행 자본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기 관련 합의안 마련 (10.12)</li> <li>- 영국은 3,000억파운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등을 담고 있는 대책 발표하고, 독일, 프랑스, 스페인,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, 포르투갈 등은 공동으로 1.3조유로 규모의 지원대책 발표 (10.13)</li> </ul>
	<p>FRB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또다른 조치로 TALF<sup>35</sup> 시행 (11.25)</li> </ul>

	- 단기유동성 대출 프로그램인 PDCF, AMLF, TSLF 시한 내년 4월말 까지 3개월 연장 (12.2)
	- 기준금리를 1%에서 0~0.25%의 범위로 하향조정 (12.16)
	미 정책당국
2008	- 미 재무부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TARP 지원 중단 (11.13)
11월	- Citi 그룹에 대한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 보증 결정 (11.24)
}	- TARP를 통한 TALF에 대한 자금지원 (11.25)
2009	주요국 중앙은행 및 정책당국
1월	- EU, 영국, 스위스, 체코, 일본 중앙은행 등 기준금리 인하(10.31 - 11.6)
	-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(유로화 사용 15개국) 경제가 이미 침체에 진입했다고 발표하고 내년 성장률을 0.1%로 전망 (11.3)
	- 내수진작 및 중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Recovery Plan 발표
	-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2.0%에서 1.5%로 0.5%p 인하 (09. 1. 8)

32) TAF(Term Auction Facility): 예금은행을 대상으로 경매방식으로 실시하는 단기 담보부 대출

33) EESA: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

34) FDIC: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

35) TALF(Term Asset-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): 학자금 대출, 자동차 할부, 신용카드 대출 등의 담보를 가지고 있는 ABS를 통한 대출

### [부록 3] 금융위기시 정책당국의 대응과정

- 금융위기시 정책당국의 일반적인 대응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루어짐
- 우선 중앙은행이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, 위기가 심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공적자금으로 매입하는 순으로 진행
  -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부족한 경우, 금융기관 자본 확충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, 마지막으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국유화 진행
  - 하지만 영국에서는 선제적으로 3개 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자산을 매입하여 부분적 국유화 진행

[그림 부록-1] 금융위기시 정책당국의 대응과정



